

## 조계사 대중, 직지사에서 생태방생하던 날



“왜 쓰았을까?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잘못한 것일까?”  
 ‘땡’ 소리에 아득한 정신으로 꼬꾸라진 채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다. 눈을 뜨고 보니 낯선 인간이 이리저리 내 몸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몇 주가 지났을까? 나는 이름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산사 한 가운데 놓였다. 지난해 옛산 수리부엉이가 말하던 인간들의 ‘방생’이라는 의식에 내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게 총부리를 겨누는 그들도 내생에 나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까?”  
 (수리부엉이 생각)

대형 버스 35대를 나눠 탄 조계사 신도가 음력 정월보름 다음날인 2월 24일, 동안계 해제 방생을 위해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 도착했다. 대웅전 앞을 가득 메운 신도들은 헌공시작을 알리는 기도 스님의 음성 따라 “정구업진언~”으로 시작되는 ‘염불장엄’을 시작했다. 1500여 대중에 한 인으로 부르는 장엄한 염불소리는 진절에 뒤덮여 하얀 속살을 그대

로 드러낸 활약상을 감동아 오란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 남형우 지회장의 익숙한 진행에 따라 이날 방생될 날짐승들이 대웅전 마당에 가지런히 놓여졌다. 긴장한 탓인지, 움추린 몸뚱이 위로 깃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울해로 벌써 5년째인 조계사의 생태방생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전주, 대구, 안동, 경주 등 각지부에서 구조된 조류류 한데 모아 방사하는 것. 방생될 새들은 주로 밀렵꾼들에 의해 관통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놈들이 대부분이다. 밀렵꾼들의 총에 부상당한 새들은 1~3개월 가량 치료



다시는 짙곡에 걸리지 말고, 이 목숨 마친 뒤에 극락세계 아미타불 곁에 상품상생 하여라!”  
 이어, 일제히 범회를 진행하던 스님과 신도들이 “불! 밥! 승!” 삼보를 외쳤다. “와~”하는 함성과 함께 날짐승들은 커다란 나래를 쭉 펼치고 힘차게 공중을 향해 날아올랐다. 개중에 몇몇은 아직 날아갈 준비가 덜됐는지 금세 마당에 내려앉기도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날아올랐다. 마지막으로 방생한 독수리는 역시 새의 왕이라 할 만큼 크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날아올라 지켜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남형우 지회장은 “총상과 약물중독 신고로 들어오는 날짐승은 전주지회에서만 연간 600여수에 달한다. 밀렵꾼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방아쇠를 당기지만, 이들에게는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다. 자신의 목숨이 귀하듯 말 못하는 짐승들의 목숨 역시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불자들 모두가 모든 죄업 가운데 살생의 죄업이 가장 중하고, 모든 공덕 중에 방생이 제일이라는 <대지도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것”을 당부했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도 “방생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적극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방생의 참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조계사 방생법회는 동안계 동안천도인 ‘시방법계유주무주영가’들과 ‘남아시아강진해일회생영가’들을 위로하는 제사, 소전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방생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이 반영된 안개의 마지막 날, 가장 적극적인 생명살림의 현상이었다.  
 직지사=조용수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 달라지는 방생문화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이면 많은 사람이 방생을 떠난다. 방생은 죽음에 직면한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본래 의미와는 달리, 한동안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놓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얼마 전까지도 방생철만 되면 각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방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듯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사람이 중심으로 방생이 원래 취지를 살리는 행사로 바뀌어가는 추세다. 특히 ‘인간방생’이 부각되고 있는 근간의 흐름은 눈여겨볼만하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북한동포, 해외난민 등 어려운 이웃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야생동물·인간방생 등 호평

### 생태계 교란 비난 속 자제

### 야생동물·인간방생 등 호평

방생 형태의 변화는 정월대보름에 맞춰 실시하던 전통도 변모시키고 있다. ‘인간방생’의 경우 포교와 맞물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인 후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방생이 단지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과 굶주림에 고통 받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모든 행위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병영 기자

## 훨훨 날아라 자유 세계로...

기간을 거친 뒤 일년에 두 번, 조계사 신도들에 의해 본래 살던 숲으로 되돌아간다. 생태방생은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한다’는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생과는 차별화 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 5마리와 독수리(243호) 1마리, 말뚝가리 2마리, 큰소쩍새(324호) 1마리, 야생 꿩 20마리 등 총 30수의 날짐승들이 방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단공양과 축원을 마친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은 본격적인 방생을 위해 대웅전 앞에서 한 줄로 늘어 서기 시작했다. 한편에 비껴선 박병영신

보살은 생각보다 큰 몸집의 수리부엉이를 보자 짐짓 놀라는 눈치다.  
 “난 조그만 걸로 봐요.” 박 보살의 불면 소리에 모두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비록, 잠시 다친 몸을 인간에게 의지하긴 했지만 야생의 본능을 가진 맹금류라는 사실에 조금은 겁이 났던 모양이다. 원담 스님은 수리부엉이를 놓칠새라 양 날개를 팽 움직여주고 있었고, 옆에 서있던 신도회장 이대각신 보살은 콧번거리는 수리부

엉이의 큰 눈을 들여다보며 연신 뭐라고 중얼 거렸다. 나중에 이 보살은 “수리부엉이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 하기에, 괜찮다, 괜찮다, 두 번 다시는 다치지 않고 잘살라고 얘기 해주었다”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방생에 앞서 포교국장 재경 스님이 새들을 위해 축원을 주었다.  
 “이제 바야흐로 너희들을 풀어주노니 오늘 맺은 불종자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 밀렵에서 구조된 부엉이, 독수리 등 30수 방사 ‘죽게 된것 구제’ 통해 생명존중 배우는 계기 돼



조계사는 2월24일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의 공동으로 밀렵꾼들에 의해 상처입은 수리부엉이 등 야생 조류 30여수를 직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방생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일	전용버스	소림사, 탐림, 백마사 순례
4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굴 민속촌 관광
5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오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약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악불사, 담계사, 오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삼보에 귀의 하얏고**  
 당시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